

법가와 자유주의 경제학

작가 임건순

1. 왕량이 말을 사랑하고 월왕 구천이 인민을 사랑한 것은 그들을 전쟁에 내몰고 말을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의원이 다른 사람의 종기를 빨거나 그 나쁜 피를 입에 머금은 것은 골육간의 친애하는 정 때문이 아니라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마 만드는 사람은 가마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요절해 죽기를 바란다. 가마 만드는 삶이 어질고 관 짜는 사람이 잔혹해서가 아니다. 사람이 귀해지지 않으면 가마가 팔리지 않고 사람이 죽지 않으면 관이 안 팔린다. 정말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죽는데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비자 비내편
2. 화살 만드는 사람이 어찌 갑옷 만드는 사람보다 어질지 못할까마는 화살 만드는 사람은 오직 사람을 다치지 못하게 할까 두려워하고 갑옷 만드는 사람은 오직 사람을 다치게 할까 두려워한다. 무당과 관 짜는 사람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직업을 택하는 데에는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맹자 공손추 상
3. 모든 현의 통치가 하나의 형식으로 통일되도록 하면 옮겨가는 전임자는 감히 자신을 잘했노라 꾸미지 못할 것이며 그 자리를 대신해 오는 후임자는 그 제도를 감히 바꾸지 못할 것이며 잘못을 저질러 폐출된 자도 능히 자신이 했던 행위를 숨길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잘못된 행위를 숨길 수가 없게 되면 관직에는 사악한 사람이 없게 된다. 옮겨가는 관리가 자신을 잘했노라 꾸미지 않고 대신해 온 후임자가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官屬은 줄어들고 백성들은 지나친 부담을 지지 않게 될 것이다. 관직에 사악함이 없으면 백성들이 피해 달아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며 백성들이 피해달아는 일이 없으면 본업인 농사일은 어그러짐이 없게 될 것이다. 관속이 줄어들면 징세가 번다繁多하지 않을 것이며 백성들의 부담이 없으면 농사지을 시간이 많아지게 도리 것이다. 농사에 힘쓸 시간이 많아지고 징수하는 세금이 번다하지 않으면 농업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황무지는 개간될 것이다. 상군서 간령 편1)

4. 열 개 마을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그 나라는 약소해지고 아홉 개 마을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그 나라는 강해진다. 낮에 그 날의 업무를 처리하는 나라는 왕 노릇을 하게 되고 밤에 그 날의 업무를 처리하는 나라는 강하게 되며, 하룻밤을 넘긴 뒤에 업무를 처리하는 나라는 약해진다.2) 상군서 거강편

5. 나라를 다스림에는 몇 가지 상황이 있으니 백성의 집에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나라는 천하에서 왕 노릇하며 관리에 의해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나라는 강하게 되고 군주에 의해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나라는 약해지고 만다.

왕노릇 하는 형벌과 상을 민심에서 판단되도록 하며 기물과 용구에 대해서는 백성들의 집에서 판단되도록 한다. 정치가 명확하면 백성들의 판단이 군주와 같아지고 정치가 어두우면 군주와 백성의 의견이 달라진다. 의견이 같아지면 실행이 되고 의견이 다르면 저지되고 말 것이며 실행되면 다스려지지만 저지되면 혼란이 일어난다.³⁾ 상군서 설민 편

6.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은 백성의 집에서 판단하기 때문이요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군주가 판단하기 때문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아래의 백성들이 판단하는 것을 귀히 여기므로 열 개의 마을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나라는 쇠약해지고 다섯 개의 마을에서 판단하는 나라는 강해진다. 백성의 집에서 판단하면 여유가 있으므로 이를 일러 “그 날 낮에 일을 처리해내는 나라는 왕노릇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관리가 판단하면 시간이 모자라므로 “밤에서야 그 날의 일을 처리해 내는 나라는 그런대로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군주가 판단하면 혼란이 생기므로 “하룻밤을 넘기고서야 처리해 내는 나라는 약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도가 있는 나라는 군주의 말을 듣고서 처리하지는 않으며 백성이 일을 처리할 때에 관리의 말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상군서 설민편⁴⁾

1) 百縣之治一形，則迂者不飾，代者不敢更其制，過而廢者不能匿其舉。過舉不匿，則官無邪人。迂者不飾，代者不更，則官屬少而民不勞。官無邪則民不敖，民不敖，則業不敗。官屬少則徵不煩，民不勞則農多日。農多日，徵不煩，業不敗，則草必墾矣

2) 十里斷者，國弱；五里斷者，國強。以日治者王，以夜治者強，以宿治者削

3) 國治：斷家王，斷官強，斷君弱。……器成於家而行於官，則事斷於家。故王者刑賞斷於民心，器用斷於家。治明則同，治闇則異。同則行，異則止。行則治，止則亂

4) 治則家斷，亂則君斷 治國貴下斷，故以十里斷者弱，以五里斷者強，家斷則有餘，故曰日治者王。官斷則不足，故曰夜治者強。君斷則亂，故曰宿治者削。故有道之國，治不聽君，民不從官

하이에키안 관점에서 본 노자의 국가론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1. 왜 하이에크와 비교인가?

□ 노자에 대한 평가가 옳은가?

- ▶ 인위적인 것, 의도적인, 의식적인 것(인위적 질서: 조직)의 부정=자연적 질서(세상의 보이지 않는 질서), 그래서 반문화적(김학주 168) 옳은 평가냐?
- ▶ 신비주의? ▶ 아나키스트?

□ 하이에크의 사상

- ▶ 인간이성의 구조적 무지 / ▶ 규칙을 따르는 행동
- ▶ 자생적 질서 / ▶ 국가론

2. 인간이성의 한계

□ 노자: 인간 이성의 구조적 무지

▲ 제71장: '내가 아는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 최상의 앎이고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것이 병이다.'

▲ 왜 이성에 한계가 있는가?

○ 장자 내편 제3장 생명을 가꾸는 근본(양생주): 나의 삶은 끝이 있는데 지식은 끝이 없다.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위태로울 뿐이다. 그런데도 네가 지식을 추구한다면 위태롭게 될 뿐이다.

□ 하이에크: 인간 이성의 구조적 무지

- 한줌의 지식,
-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아는 것도 불가능, 하물며 수많은 정신들의 상호작용

용을 아는 것은 더 더욱 불가능(감각적 질서)

□ **인간이성의 한계: 무(無)의 사상과 자연(自然)의 사상을 발전시킴**

▲ "인위적이고 의식적인 모든 것을 부정. 사람들이 인위적이고 의식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자연'인 것. (김학주: 7)

▲ 무(無)의 사상: 무지 무위(無爲) 무아(無我)

□ **인간이성의 구조적 무지의 두 가지 차원**

▲ 개인의 차원: 무위를 규칙준수에 적용

○ 도덕경 제38장 "최상의 덕은 의식할 수 없음: 최상의 덕은 의도한 바도, 드러난 행위도 없다."

○ 인간행동: 목적의식적/규칙을 따르는 행동

○ 규칙을 따른 두 가지 행동: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규칙

-말로 표현 조차할 수 없는 규칙: 초 의식성, 초 의식적 지식
정의감 법감정

▲ 정부의 차원: 무위정치: 불간개입 정책; 최소국가

규칙 지향적 정책: 질서정책

□ **도란 무엇인가**

▲ 도의 일상적인 뜻: guide, 법, 도덕, 방법, 원칙,

▲ 도교사상에서 도의 의미: 도는 자연의 길, 세상의 원리. 우주의 원리,
이상적이면서 동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질서, 세상의 역동적 원칙

3. 간섭주의의 문제

□ **간섭을 반대하는 이유: 최초의 사회주의의 불가능정리**

▲ 도덕경 제29장 "천하는 억지로 다스릴 수 없다. 장차 천하를 취하여 뭉가

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나 나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을 안다.
천하와 사람은 신령한 기물이라 억지로 다스릴 수 없으니 억지로 취하고자 하는 자는 실패하고 억지로 잡는 자는 잃게 된다.”

▲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박세일 민경국 공역 2009/ 443-444)

“계획주의자(man of system)는 거대한 사회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마치 장기판위에서 손으로 말들을 배열하는 것만큼이나 아주 쉽게 배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장기판위의 말들은 사람의 손이 힘을 가하는 대로 움직이는 수밖에 달리 다른 운동원리가 없지만 인간사회라는 거대한 장기판에서는 모든 말 하나하나도 자기 자신의 운동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입법기관이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만약 각 구성원들의 원동원리와 입법기관이 부과하는 운동원리가 일치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인간사회의 게임은 편안하게 조화롭게 진행될 것이며 또한 행복하고 성공적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두 가지 운동원리가 서로 반대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면 게임은 불행하게 진행될 것이며 그리고 인간사회는 언제나 최악의 무질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 도덕경 57장

“법령이 엄하고 요란할수록 도적은 더욱더 많아진다.”

“천하에 꺼리거나 두려워서 피해야 하는 것이 많을수록 백성은 더욱 가난해진다.”

=>정부의 간섭은 비생산적이고 혼란을 야기.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빈곤해진다. 법과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둑과 강도가 많아진다.

□ 하이에크

▲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것이 병이다.’라는 노자의 말은 하이에크의 "pretense of knowledge"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치명적(치명적 자만, 노예의 길)

4. 불간섭주의가 가능한 이유: 세상의 보이지 않는 질서

□ 불간섭을 지지하는 이유

▲무위사상을 정치에 도입: 무위란 경제에 대한 국가의 불간섭.

○-그렇다면 혼란이 생겨날 것이 아닌가?(Th. Hobbes).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도 질서가 형성됨:

○-보이지 않지만 질서가 형성(unsichtbare Weltordnung): 자연적 질서/

▲이분법: 자연적 질서/인위적 질서

○자연적 질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배자는 무위를 따름으로써 자연적 질서가 자기 나름대로 등장 그 결과는 사회적으로 유익

○자연적 질서가 인간이 의도적으로 계획한 질서보다 더 우월/ 인간지식은 부분적이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

□ 하이에크: 3분법: 인위적 vs. 자연적 vs. 자생적 질서

▲자생적 질서는 인위적 질서와는 달리 추상적 질서 보이지 않는 질서, 질서가 형성되는 힘, 원리도 보이지 않음.

▲이분법의 오류: 반문화적

□ 어떻게 자생적 질서의 형성이 가능한가?

▲도는 규칙을 따르는 행동

○도덕경 제32장 "백성은 스스로 다스릴 줄 알고 또 스스로를 규제할 줄도 안다".

○67장 나의 세 가지 보배 자애 검약 양보

○81장 인격·재산존중/ 정직/ 신뢰

▲도덕경 제38장 "최상의 덕은 **의식할 수** 없음: 최상의 덕은 **의도한** 바도, 드러난 행위도 없다."

- ▲하이에크: 초 의식적 행동: 무위를 규칙준수 행동에 적용한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초의식적 행동규칙을 따르는 행동
- 정의감, 법 감정과 같은 행동규칙에는 초의식적 암묵적 지식을 구현
-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틀렸음 그 반대가 옳음. 문명의 발전은 생각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의 수효가 점차 커진다는 점이다.”

5. 국가의 정책: 과정정책이 아닌 질서정책

□ 노자의 정부: 작은 물고기 요리사

▲도덕경 제60장 “대국을 다스리는 일은 마치 작은 물고기를 요리하는 것과 같이 한다.” 왜냐하면 “작은 물고기의 창자와 비늘을 함부로 뒤적거리면 물고기가 문드러지기 때문이다.”

▲도에 따른 정책은 질서정책

- 도는 조각조각으로가 아니라 전체로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
- 개별분석이 아니라 전체분석: 질서사상
- 도의 힘에 따라 유지되는 전체.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질서의 원리를 따르는 것.

▲도가적 경제정책은 특정한 방향으로 사회를 변동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아니다. 국가는 개인들이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틀을 정하는 것. 법도(法道)의 정치는 이해관계의 정치가 아니라 원칙의 정치다.

▲사람의 능력을 이용한 다스림이나 인위저긴 덕행을 부정(제80장: 김학주의 해석 김학주 296):엘리트주의의 부정

□ 하이에크: 노련한 외과의사 또는 정원사

▲“우리의 자세는 살아있는 유기체를 대하는 의사의 자세”

○의사처럼 우리가 다루는 것도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힘들에 의해서 스스로 유지되는 전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신체구조를 바꿀 수 없고 신체전체의 맥락에서 신체의 아픈 부분을 회복하는 것.

○사회도 사회전체의 맥락에서 사회의 질서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일.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의 자세

○정원에 있는 나무를 만들어 낼 수 없음 그가 할 일은 주어진 정원수의 보기 흉한 가지 또는 거칠 게 자라난 곁가지들을 자라내는 일. 정원수의 본 모습은 바꿀 수는 없음.

6. 맺는 말: 노자 사상은 문화적 진화사상=스코트랜드 전통의 계몽사상

○노자의 사상은 자연권사상도 아니고 자생적 질서와 진화사상의 전통과 밀접한 오스트리아학파.

○자생적 질서와 자유주의도 서구의 고유한 개념이 아님

○인간은 의식적 목적 추구가 아니라 규칙에 따르는 행동,

 막스 베버의 가치 합리적 행동을 전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 속하는

 주류경제학과 미제스의 행동학과 차이가 있음